

# 순천시·고흥군·해남군 새 청사 잇단 건립

### 기존 청사 비좁고 낡아...대부분 예산 자체 조달 계획

### 순천 2022년·고흥 올해말·해남 2019년 개청 목표

순천시, 고흥군, 해남군 등이 일제히 시·군청사 신축에 나서고 있다. 이들 시·군은 기존 청사가 낡았거나 비좁아 신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부분 예산을 자체 조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관련기사 12면>

순천시는 시 승격 70주년인 오는 2019년에 첫 삽을 뜨는 것을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우선 타당성 조사 등의 용역비와 청사 건립 기금 100억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하고 2022년 개청을 목표로 계획 수립에 들어갔다. 올해는 청사건립 시민위원회

구성, 시민 대토론회, 아이디어 공모전 등으로 청사 건립에 따른 여론 수렴에 나선다.

또 청사 터 확정과 기본계획 구상, 타당성 조사 용역 등 본격적인 행정 절차도 시작한다. 순천시는 지난해 9월 청사 건립 계획을 세우고 시의회 보고와 읍면동 순회 시민 설명회를 했다.

시민과 공무원 등 3512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했고, 누리집과 사회관계망(SNS)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견을 모았다. 설문조사에서는 응답자의 90% 이상이

청사 건립에 찬성했고, 청사 건립에 가장 적절한 시기로 응답자의 85%가 5년 이내인 2022년 준공을 꼽았다.

고흥군은 2017년 말 준공 목표로 총사업비 472억원을 투입해 고흥읍 남계택지 개발지구 공공청사 용지에 지하 1층, 지상 6~7층, 연면적 1만5497㎡ 규모로 신청사를 짓는다. 군청과 군의회만이 아니라 주민편의시설 등을 갖춘 종합행정타운을 건립할 예정이다. 최근 신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회의를 통해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신청사 조감도 디자인을 최초 공개하기도 했다.

고흥군은 신청사 조감도 기본설계안에 대해 "고흥의 새로운 도약을 상징하는 랜드마크 청사로 지역 지명의 '높을 고(高)'

자를 입면 디자인에 반영했으며,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지형을 활용한 건축배치와 외부 공간계획을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신청사 건립공사는 1개의 시공업체가 설계 및 시공을 모두 수행하는 턴키방식(설계시공 일괄 입찰방식)으로 진행중이며, 지난 6월 금호산업이 실시설계 적격자로 선정돼 올 10월 실시설계 심의완료 후 본격적인 건축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해남군도 군청사 신축을 추진중이다. 군은 오는 2019년까지 군비 483억원을 들여 부지면적 2만262㎡에 연면적 1만6910㎡의 청사를 새로 지을 계획이다.

/고흥=주각종기자 gju@ /순천=김은종기자 ejkim@

# 광주시 올 전기자동차 100대 보급

### 대당 2100만원 보조금...충전 인프라 107기도 설치

광주시는 올해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 각각 100대와 50대를 민간 등에 보급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107기도 설치한다. 광주에 사는 중소기업, 유통업체, 시민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선착순 보급이다. 이번에 보급되는 전기자동차는 100대 중 민간은 95대, 공공부문은 5대다.

전기차 구매자에게는 1대당 2100만원(국비 1400만원, 시비 7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지방비 보조금은 광역시가 운대 가장 많은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보급 차종은 기아자동차 레이(Ray)와 쏘울, 닛산 니프, 르노삼성 SM3, 현대자동차 아이오닉, BMW i3 등 5개사 6종이다.

전기자동차 이용자 편의를 위해 완충 충전 인프라 107대를 올해 보급한다. 이 가운데 67대는 전기차 구매자를 위한 가정용 충전기이며, 한국환경공단에서 3월부터 선착순 보급한다. 나머지 40

대는 광주 관내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공공용으로 구축한다.

전기차는 1개월 평균 1000km를 주행할 경우 전기 기본요금 1만9120원을 포함해 5만7280원으로 저렴하다.

올해 신규 사업인 전기이륜차도 보급한다. 보급차종은 KR모터스의 로미오 등 4개사 6종이다. 차량가격은 382만원~645만원으로 보조금 250만원을 받으면 대략 132만원~39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급 대상은 피자, 치킨배달 등 오토바이를 활용해 배달업을 하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시민이다.

광주시는 지난해까지 전기자동차 248대, 전기이륜차 10대, 충전인프라 291기를 보급했다. 전기이륜차는 연료비가 기존 내연기관 이륜자동차의 4% 수준이다. 광주시 홈페이지(www.gwangju.go.kr) 자동차산업과(☎062-613-3930)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광양항 활성화 대선공약으로 푼다

### 수역 정비 등 5개 사업 2조 8700억 반영 모색

광양시가 침체를 거듭하는 광양항 제2의 도약을 위해 지역 대선공약에서 활로를 찾는다.

광양항은 최근 정부의 2대 항만(투 포트) 정책에서 소외되고 컨테이너 처리 물량도 2위 자리를 인천항에 내주고 말았다. 특히 한정된 정부 예산을 받아내기에는 시세(市勢)가 수백만 인구를 등에 업은 부산·인천항 등 경쟁 항만의 배후도시와 비교해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치러질 것으로 보이는 조기 대선에서 광양항 활성화 과제를 공약사항에 반영해 투자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를 위해 광양시는 광양항 활성화 대선공약으로 5개 사업에 총 2조8700억원을 발굴했다. 아직 개발하지 못한 3~3단계 부두개발과 물류자동화시스템 구축에 1조 7000억원, 초대형 컨테이너선 입항을 대비한 수심 확보 등 수역 정비에 1조원, 항만 컨테이너 적치장 장비와 철송장 운영 지원에 1000억원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광양시는 이번 공약이 전남도 정책부서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의 검토를 거쳐 최종 대선공약으로 채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양=박영진기자 pyj4079@



美 반이민 반대 시위 확산 지난 3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대법원 앞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 이민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시위가 벌어진 가운데, 한 시위 참가자가 성조기를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 전남도 추진 '섬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될 듯

### 행자부 수용...날짜 등 공모

전남도가 추진해온 섬의 날이 국가기념일로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는 지난 31일 "해양거점이자 영도 주권의 전초기지인 섬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행정자치부와 함께 2월 24일까지 섬의 날 제정 대국민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응모자는 섬의 날 제정 일자와 의미를 행정자치부와 도·시·군 누리집, 또는 SNS 등에 게시할 수 있다.

전남도는 지난해 9월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총회에서 "국가 영토주권의 최전선이자 지킴이로서 섬의 중요성과 가치를 높이고, 도서 지역 발전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아 국가적 차원에서 4월 14일을 섬의 날로 제정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4월 14일은 1986년 섬의 개발을 위한 국가 실행계획인 제1차 도서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날이다.

이에 행자부는 전남도의 건의를 수용해 대국민 공모 절차를 거쳐 섬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하기로 했다. 이는 섬의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모든 국민이 1년 중 하루라도 그 중요성과 생태 가치를 공감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윤현석기자 chadol@

# 전남도의회 탄핵·AI 사태 속 외유성 해외연수 눈총

### 의원 21명 2팀 나눠 남아프리카공화국·인도네시아 방문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탄핵정국과 AI 사태 속에 남아프리카와 인도네시아 등으로 집단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나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31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 10명과 공무원 2명 등 12명은 1일부터 8일까지 5박8일 일정으로 예산 3859만원을 들여 남아프리카공화국 해외연수에 나선다.

이번 해외연수는 인종차별 정책을 성공적으로 없앤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직접 방문, 도내에 적합한 인권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도의회는 밝혔다.

또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소속 의원 11명과 공무원 4명은 4일부터 9일까지 4박6일 일정(총 예산 2734만원)으로 관광 및 경제활성화 정책 개발을 위해 인도네시아를 방문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들의 일정 대부분은 애초의 목적과는 관련없는 각 도시의 관광지과 유적지 방문 등으로 구성됐다는 지적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테이블마운틴 시내와 케이프타운, 전통시장, 전통문

화박물관 등 주요 관광지를 시찰하는 것으로 채워졌다.

인도네시아 일정은 울루와뚜 절벽사원 등 문화탐방과 우붓 아이안바로우미술관 방문 등 이렇듯 관광지 방문이 일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AI 사태로 농가의 시름이 깊은 상황에서 도의회가 외유성 해외연수 일정을 계획한 것을 놓고 비난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일부에선 이번 도의원들의 해외연수는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시기성과 공무가 아닌 관광에 상당부분 초점이 맞춰진 것이 문제라는 지적이 많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겨울 가뭄...장성 평림댐 저수율 40%대로

### 전남 북서부 식수난 우려

겨울 가뭄으로 전남 북서부 지역의 대표 광역 상수원인 장성 평림댐의 저수율이 40%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1일 장성군에 따르면 장성, 담양, 함평, 영광 등 4개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평림댐의 저수율이 낮아 비가 오지 않으면 6월 말쯤 식수난이 우려된다.

평림댐 수위는 최근 가뭄으로 과거 10년 평균 저수율과 비교하면 20% 이상 낮아졌다. 평림댐은 하루 평균 3만

수돗물을 장성과 담양, 함평, 영광 4개 군에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수자원공사는 내년까지 수돗물 공급량을 확대하기 위해 현재 영산강권 급수체계 조정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장성군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겨울철 가뭄 대비 수돗물 아껴 쓰기 운동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장성군 관계자는 "비가 내리지 않으면 6월 말에는 댐 수위가 낮아져 물 부족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 태양광발전소 분양모집

# 해만 뜨면 돈이 들어오는 태양광발전사업

**이런 분께 권합니다!!**

- ▶안정되고 지속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
- ▶사업에 대한 투자를 고민하고 있으신 분
- ▶사업(장사)에 노하우 및 기술에 대해 자신 없는 분
- ▶창고, 축사, 공장, 땅 등 기타 부동산 소유하신 분

**투자에 장점!!**

- ▶특별한 기술적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 ▶적자를 보지 않는 사업!!
- ▶안정적인 전기 매입처 (한국전력·전력거래소 / 18개 메이저 발전자회사)
- ▶안정적이고 반영구적인 발전설비 (모듈 수명 20년 보증, 보증서 발급)

**태양광발전소 투자하고 싶은데 건물·땅 없는 분!!**

H·P **011-608-9593**  
CALL CENTER **1522-6570**

**분양 모집중**

전국전역의 회사 보유분 발전소

상담문의 | 신·재생에너지전문기업

**에이엠 (주)이엠**  
ENERGY Marketing  
www.emsolar.kr